

오늘 우리 종단은 매우 뜻 깊은 첫 걸음을 내 �딛습니다.

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생각과 말이 제대로 통리지 못하고 막혀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분쟁과 갈등을 슬기롭게 풀고, 조화롭게 상생을 모색하는 화쟁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.

화쟁위원회에는 그 동안 사회 각계 각층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며 불교적 대안을 마련하고 앞장서서 실천에 옮겨온 분들을 위원으로 모셨습니다.

**세상의 분쟁과 갈등은 결코 대립
· 분노나 복수로 해결될 수 없다는
것이 부처님 이래 원효스님에 이르기
까지 여러 조사스님들의 가르침이었
습니다.**

**막힌 곳을 뚫어 원활하게 흐르게
하고 소통 진정한 화합을 성취 할 때
에만 비로소 분쟁과 갈등이 원만하게
풀릴 것입니다.**

**오늘 구성하는 화쟁위원회의 역할이
바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
조화와 상생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.**

**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임시
방편으로 해결하고 문제의 본질은
덮어둔 채 놓아두는 치료(治療)가
아니라, 이해 당사자들이 흔쾌히
동의하고 서로 박수를 칠 수 있게 하는
다스리는 치유(治癒)에 이르도록 하는
것이 화쟁위원회가 해나갈 일이라고
확신합니다.**

**오늘 우리 종단이 모시는 화쟁위원
한 분 한 분은 모두 다 그 동안 부처
님의 가르침을 올곧게 실천해 온 분
들입니다. 개인 수행과 후학 지도,
환경과 인권·통일 등 각 분야에서**

**꾸준하게 활동하면서 그 대안을 바르게
모색해온 분들입니다. 불자들뿐 아니라
일반 국민과 사회 각계각층의 존경을
받는 분들입니다.**

**우리 종단은 화쟁위원회가 원만하게
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
않을 것입니다. 우리 사회의 분쟁과
갈등을 화쟁으로 치유하여 우리가
사는 이 땅에 정토를 구현하기 위한
노력에 원력을 모아 지원하도록 하겠
습니다.**